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HELLO NEXEN MAGAZINE

가을호 2020 Vol.81



www.nexentire.com



CONTENTS

N'exen



06

- 06 치얼 Up
코로나 극복 기원 '덕분에 챌린지'
- 08 넥센 Issue 1
ON AIR NEXEN Culture TV
- 10 넥센 Issue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CSR Report 발간
- 12 넥센 Issue 3
N'Dea 시상식
- 14 넥센 Issue 4
서울디지털대학교 첫 졸업생 배출
- 16 넥센 Together 1
NEMO(네모) 댓글 릴레이 이벤트
- 18 넥센 Together 2
더넥센유니버시티x퍼플레인 3D 미디어아트 협업
- 20 넥센 Together 3
미디어 월과 여행지의 만남
- 24 넥센 Together 4
N젤 어린이집 여름 미니 전시회



2020 Vol.81

표지 이야기

괴로운 일은 모두 잊고 'Cheer Up!'
힘들었던 만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넥센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20년 가을호 통권 81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0년 10월 6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홍소녀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아트프린팅(주)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N'dorphin



24

- 28 인사이드 Theme
Let's All Cheer Up, Fighting!
- 32 테마 Story
부담 없이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 36 일상 Story
비대면 서비스를 주목하라
- 40 나의 Life Of Art
나의 인생작
- 44 킷치 Road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 48 엔터 Travel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나의시월'
- 52 웃음 Code
QR코드로 알아보는 웃음 코드
- 54 넥센 Quiz
사보 속에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라

N'otice



62

- 58 설문 Survey
넥센인이여 Cheer Up하라
- 60 챗 Chat
동료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 62 사진 Gallery
달콤했던 휴가의 기억
- 68 타이어 Tech
타이어테크 김천중앙점
- 72 넥센 News
- 82 참여 안내

... **많**은 일이 벌어지는 인생에서 걱정은
 물건 살 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포장용기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쓰레기가 되어 자리를 차지하고, 내다 버려야 하는 귀찮음을 수반하지만
 ... 알맹이를 취하기 위해서는 꼭 함께 가져가야 하죠.

... 이렇게 얻게 된 걱정이 심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두려움이 됩니다.
 ... 그리고 두려움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 걱정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고통으로.

...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걱정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 걱정에 물들기 시작한다면 그 끝에 남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 건강하게 걱정을 당신의 삶에서 분리수거하고
 ... 원하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세요.

...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Cheer Up!**



코로나 극복 기원 '덕분에 챌린지' 임직원 여러분 힘내세요!

글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 사진 이명호



9월 11일 더빅센유니버시티 3층 아트리움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내 커뮤니티 모임인 네모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했으며, 장기간의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총 16명이 모여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로, 넥센 임직원들이 다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㉞



ON AIR

NEXEN ((Culture TV))

글 마곡기업문화팀 김지현 사원



넥센타이어가 9월 2일 사내방송, 'NEXEN CULTURE TV'를 시작했다. 'NEXEN CULTURE TV'는 넥센타이어의 핵심 가치인 도전·창의·협력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내방송을 구현해 한층 더 가깝게 넥센을 경험해볼 수 있다. 본 방송에는 뉴스 및 정보 프로그램, 강연 생중계, 기획 영상 등의 콘텐츠가 담겨 있으며 시청은 유튜브와 사내방송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미디어 시대에 맞춰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더욱 다양한 소식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사내 소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넥센타이어 사내방송'에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란다. ㉞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CSR Report 발간

넥센타이어는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목표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CSR 원칙을 수립해 CSR Report를 발간했다. CSR Report에는 CSR 원칙인 기업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공급망 책임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사진 마곡기업문화팀 방재훈 선임

넥센타이어가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이하 2019/20 CSR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노동 및 인권, 환경·안전 및 보건 등에 대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개한 넥센타이어의 첫 CSR 보고서다. 특히 천연고무 구매에 대한 CSR 정책 강화,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소개했다. 넥센타이어는 보고서를 통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고객, 주주,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제고 및 기업 가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은 “지금까지 일궈온 78년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CSR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국제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작성됐으며,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orea Management Registrar)으로부터 외부 검증을 받았다. ㉞

N'Dea,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드디어 빛을 발하다!

N'Dea 시상식



글 전략기획팀 서혜정 선임 사진 이명호



넥센타이어가 지난 1년간 접수한 사내제안제도(이하 N'Dea제도)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N'Dea제도는 임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회사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회사의 경영 성과 및 문화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약 1년 동안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1등 및 2등은 N'Dea제도와 TPM에서 우수한 제안 후보를 접수받아, 강호찬 부회장 및 아태지역 대표를 비롯한 N'Dea 심사위원진의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인기상의 경우 각 BG별 기획부서들의 인기 투표를 통해 선발됐다. N'Dea의 1등인 Hero상 수상자는 상금 200만 원과 부상으로 삼성 QLED 75인치 TV를, 2등인 Changer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 원, 인기상은 10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우수지원팀은 각각 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 받는다. N'Dea 수상자 중 Hero상의 주인공은 SCM팀 박승기 책임으로,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Tracking System 도입' 아이디어를 제안해 Hero상을 거머쥐었다. 박승기 책임은 수차례 공장에 직접 출장을 가는 등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해당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거래선 신뢰도 구축 및 영업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판가 관리에도 도움 및 매출 하락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hanger상은 YP물류운영팀 김동철 조장으로, '공장의 타이어 자동포장기 포장지 폭 확대 적용으로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해당 아이디어를 통해 '작업자 노동 강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라는 무형 효과뿐만 아니라, 포장지 비용이 절감되는 유형 효과도 예상된다. 인기상은 글로벌영업지원팀의 서은경 선임이다. '복리후생비 중 부서단합비를 개인 문화/교육비 지원으로 전환' 아이디어로 여러 팀의 지지를 받아 인기상을 받게 되었다. 우수지원상은 N'Dea 제안 실행에 도움을 준 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INFRA운영팀, 마곡기업문화팀, 아시아영업기획팀, YP물류운영팀, CP물류운영팀 총 5개 팀이 선정되었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조촐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대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시상식 이후 제2회 N'Dea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임직원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N'Dea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사내 커뮤니티 NEMO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시스템을 곧 오픈할 계획이다. ㉞





서울디지털대학교 첫 졸업생 배출 일과 학업 모두 잡다

2017년 넥센타이어와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후 3년 만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는 인재 육성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며 개인과 회사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글 인재개발팀 김소희 사원

넥센타이어에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졸업생이 나왔다. 대상 직원은 모두 12명으로, 넥센타이어가 2017년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이후 회사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 2018년 편입학한 학생들이다.

이번에 우수 학점으로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한 이수진 사원(YP인사지원팀)은 “현업과 병행하여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좋은 기회를 이용해 자기계발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무엇보다 실제 익힌 것에 이론을 접목할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박경만 책임(노사협력팀)은 “영업을 할 때 신규 직영점 개설을 위해 부지 조사, 임대부지 시세 및 조건 확인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었다. 마침 임직원 학위 취득 지원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 강의를 들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적인 부분 등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금 더 준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에는 당연히 시간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모바일로 하루 1~2시간씩 매일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약간의 주말 시간을 투자하면 큰 무리 없이 이수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걱정 말고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지식의 습득과 자기계발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디지털대는 경영, 세무회계, 부동산, 상담심리, 사회복지, 영어,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미디어영상 등 24개의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신입생은 140학점, 편입생은 70학점을 이수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서울디지털대의 수업과 시험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현재 약 50명의 직원이 회사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㉞



NEMO(네모) 댓글 릴레이 이벤트

우리는 늘 이겨냈고,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NEMO에서는 분위기를 조금 더 Cheer Up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댓글로 응원을 보내는 작은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동료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정리 이다영



손민필



응원해주신 원태희 팀장님 감사합니다. 사내 감사 시절 그 어렵다는 회계를 쉽게 교육하시던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YP)품질팀 이수벽 팀장님을 응원합니다. Nexen Brand Name Value 향상을 위해 사내·외 품질을 관리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에 반했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커피는 Now Coffee입니다.



이수벽



응원해주신 손민필 팀장님 감사합니다. 쉬운 자리가 아닌데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슬기롭게 잘 꾸려나가는 듯해 후배지만 배울 게 많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제현 팀장을 응원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임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은 텐데 현업 업무를 성실하게 챙기며 웃음 잃지 않는 모습이 멋집니다.



조제현



이수벽 팀장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웃음 잃지 않게 도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대원 팀장님을 응원합니다. 본인이 하는 업무에 긍정적이며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의 긍정적인 모습 항상 유지하시길 응원합니다.



최대원



조제현 팀장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소의 만며느리, 작은 형님 같은 김병희 팀장님을 응원합니다. 적은 팀 인원으로 미래연구소, 중앙연구소, 그리고 연구소 전체의 업무 조율과 전사 대응 업무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런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소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중략>



구농부



깨다시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P)품질검사팀 시병진 책임님을 응원합니다. 때로는 끈대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꼼꼼한 업무 처리+동네 형처럼 후배들을 챙겨주는 마음+어려운 업무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늘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 후배들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시병진 책임님 Fighting!!



시병진



응원해주신 구농부, 구재본 책임님 감사합니다.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 동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구 책임님의 응원에 이어서 저는 (CP)MES파트 유헥석 사원님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원 때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뭐든 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ES파트 특성상 화면 개발 및 현장 전산 트러블 처리 업무 등 사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유헥석 사원 파이팅!!



더넥센유니버시티X퍼플레인

3D 미디어아트 협업

스페셜 라이브 공개


넥센 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그룹 퍼플레인이 특별한 라이브 영상을 촬영했다. 대규모 미디어 윌을 활용한 그룹 '퍼플레인'의 영상 장면을 만나보자.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Waking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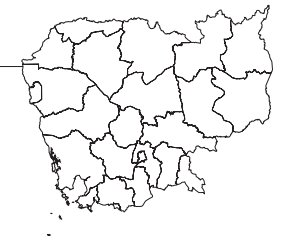


New World

퍼플레인은 지난 7월 신곡 'New World'와 'Waking Up'을 발표하며 더넥센유니버시티 미디어 윌에서 촬영한 라이브 영상을 SNS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New World'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을 담은 곡으로, 광활한 우주와 도전(불), 창의(물), 협력(라인)을 형상화한 미디어아트와 접목시켜 시너지를 높였다. 또 얼어붙은 세상으로부터 깨어나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Waking Up'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부딪히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도전하는 움직임을 상징하는 미디어아트와 만나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Cambodia



미디어 월과 여행지의 만남

더넥센유니버시티 한복판에서 세계를 만나다

여행이 제한되어 답답하고 아쉬운 넥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미디어 월이 타국의 아름다운 여행지 모습으로 새 단장됐다.
미디어 월의 탁 트인 화면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여행지의 풍광을 함께 감상해보자.

글 이다영 사진 이명호





Italy



Australia



N젤 어린이집 여름 미니 전시회

N젤들의 솜씨 자랑



N젤 어린이집 아이들의 작은 전시회가 '넥센유니버시티' 로비에서 열렸다. 새싹반, 꽃잎반, 햇살반 아이들은 어떤 작품 세계를 펼쳤을까? 코로나19 시기에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천사 같은 아이들의 깜찍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글 이다영 사진 이명호





요 동치는 삶의 온갖 역경 속에서 괴롭다고 느끼시나요?
 기운이 빠지고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인간사에 안정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해하지 마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으로, 오늘의 행복 또는 불행이
 내일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많이 들뜨고 많이 낙심할 필요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아닐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Cheer Up!

다시 기운 낼 수 있게 해주는 힘

Let's All Cheer Up, Fighting!



일곱 번 넘어진 개구리 왕눈이는 울지 않고 일어나 피리를 불었다.
패배를 뒤돌아보지 않는 피구왕 통키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승리를 향해 갔다.
언제나 다시 힘을 내 미래를 향해 가는 만화 속 주인공들처럼
축 처진 마음을 툭 털고 Cheer Up해보자.
빛나는 내일이 당신을 기다린다.

글 이다영




어느 누군가는 삶을 고통의 연속이라 이야기한다. 몸이라는 유한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고통을 수반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파이팅은 분명 존재한다. 어떻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냥 괜찮다 다 괜찮다

격려나 위로의 말이 가지는 진정한 힘은 긴장·불안 같은 심리적인 벽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떤 위로가 상대를 북돋울 수 있는 좋은 위로라고 생각하는가? '힘내' 혹은 '다 잘될 거야'와 같이 판에 박힌 상투적인 격려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할 때도 더러 있다. 좋은 위로와 격려는 워딩이 중요한 것일까? 사실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듣느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좋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내 꿈과 생각, 그리고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의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가 긴장과 불안을 털어낼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이 가진 온전한 힘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냥 한번 해보는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실한 위로는 통한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 존재를 인정하고 '괜찮아'라고 한마디 건네보자.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막연한 것은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으며 상실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변화해갈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우울감과 무기력증만 남게 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우울감에 빠지는 것과 무기력해지는 것은 쉽다. 우울한 기분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진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우울감이 결국은 몸 전체를 지배하고 조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닌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힘든 순간은 언제나 존재한다. 코로나19, 홍수, 취업난, 이별... 셀 수도 없게 계속해서 인생을 강타하는 이 고난들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떠한가? 당신이 겪는 현실에 따른 생각 또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슬프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고,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 슬픔이 가져다준 우울감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심외경,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본다는 것. 당신의 마음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보는 풍경도 건강하다. 상황은 당신을 망칠 수 없다. 당신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부담 없이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일이 두려운 나였는데 요즘은 오늘이 두렵다.
마음 편히 잠을 잔 적이 언제였는지... 하루하루 선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는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세상.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할까.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글 혼글(조성용)

사소한 행복의 위로

나는 오래전부터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나에게 내일은 머나먼 미래처럼 느껴졌다. 그래서일까, 웬만한 건 오늘 다 하자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고 싶은 건 미루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뭐라도 괜찮으니 나를 웃음 짓게 해줄 사소한 행복을 찾아다녔다. 좋아하는 영화 한 편으로 마음을 위로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주며 웃음을 보는 일. 때론 나를 위한 행복, 때론 타인을 위한 행복. 낭만적인 행복, 현실적인 행복. 앞서 나열한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깊숙이 느낄 때면 텅텅한 듯 느껴졌던 하루가 확실히 개운해졌다.

살아갈수록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크고 반짝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작고 사소한 행복의 연속이 우리를 내일로 이끌어간다는 것. 어쩌면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를 찾는 일이 아닐까. 삶의 의미, 그 전에 오늘의 의미. 의미가 없는 삶은 이름표 없는 삶.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끝끝내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의미를 찾으려고 해보자. 그럼 고된 하루를 버텨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견딜 수 있게 되고, 풀풀거리는 나를 단단히 잡아준다. 부담 없이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이라는 말을 뺄 줄 알아야 한다. 잘하자는 말보다 그냥 하자는 말. 잘살자는 말보다 그냥 살아가자는 말. '잘'이라는 한 글자만 빼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하고 싶을 땐 그냥 하고, 이겨낼 땐 그냥 이겨내는 것. 그거면 된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호흡의 책. 그 속에는 수많은 좌절도 있고 슬한 환희도 있다. 매일 어둠을 걷어가며, 밝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잠시 지나가는 소낙비가 무지개를 몰고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아무리 어두운 날들을 겪어도 반드시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

혼글(조성용)

작가 겸 작사가로 <내일이 두려운 오늘의 너에게>, <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 <다 괜찮다>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작사 작업에 참여한 노래로는 원위 <아행성>, 윤한솔 <네가 잠든 동안>, 풀카이트 <낭만>, 이민혁 <우리 오늘 만날까> 등이 있다. 주로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따뜻한 글을 게재하며 감성을 자극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좋은 것들을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잘 돌봐야 한다.

버티고 채우며 돌보는 마음, 흔들

버티고 채우며 돌보는 마음

우리는 모두 금이 간 사람. 저마다의 상처로 또 저마다의 걱정으로 이런저런 금이 간 사람들. 그래서인지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론 아픈 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 나는 견고한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금이 간 사람이 좋다. 벌어진 틈이 있다는 건 쓸쓸하지만 동시에 강인하다는 뜻.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온 힘 다해 제 몸을 깨뜨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틈이 존재하는 사람은 버텨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건 결코 흠이 아니다.

인생은 좋은 것들을 곁에 두고 사는 일보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일. 마음이 허한 사람,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손에 쥐게 되더라도 단 한 번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와 미, 사랑, 낭만은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목적에 욕심을 채워 넣곤 하지만 그건 허황된 것이다. 물질적인 것, 그저 화려한 삶이 아닌 어떠한 내가 되어갈지, 어떤 꽃을 피워낼지 마음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좋은 것들을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잘 돌봐야 한다.



빙빙 돌아가는 길에서도 인생 최고의 풍경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느끼고 우연처럼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긋한 행복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느긋한 것들의 아름다움, 흔들

느긋한 것들의 아름다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지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인에게 관광지까지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알려준 길로 무작정 걸었는데, 아무리 가도 목적지는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은 빙빙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다. 다음 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체 왜 곧장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고 오래 걸리는 길을 알려준 거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길은 비록 빠른 길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쁜 길이에요. 당신이 이곳을 여행하면서 좋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꼈으면 해서 일부러 그 길을 알려준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지인은 다시 그 길을 걸어보았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이 참 예뻐다고 한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빠른 삶에 중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에 가는 길은 아니더라도 둘러보면 참 아름다운 길인데 빠르지 않다고 불평을 하면서 풍경을 놓치는 것처럼 말이다.

지도를 펴면 제일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내비게이션을 켜면 막히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요즘, 빙빙 돌아가는 길에서도 인생 최고의 풍경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느끼고 우연처럼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긋한 행복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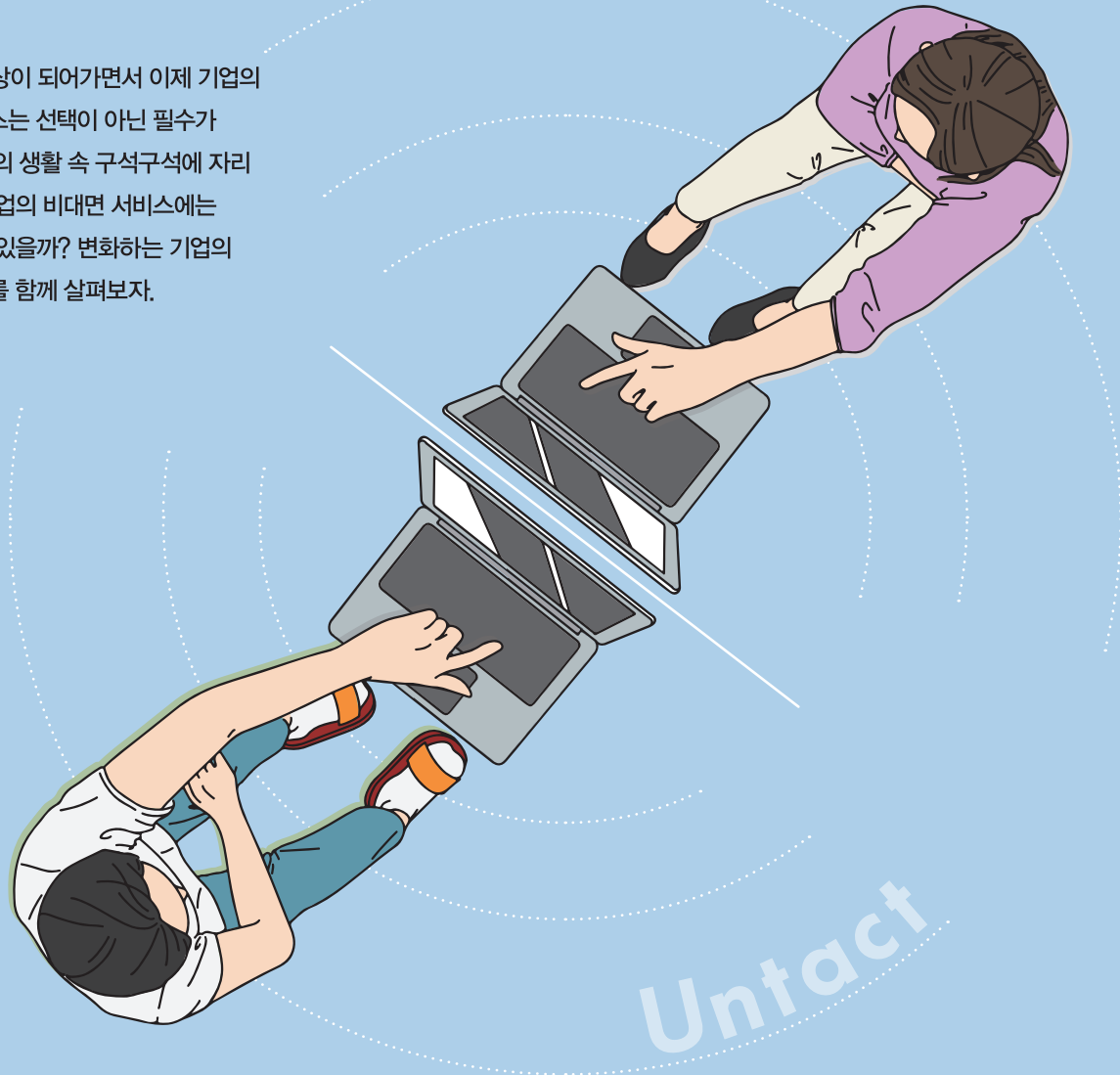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떨까. 앞으로 가게 될 길은 어딜까.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다. 삶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고, 지나봐야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저 길을 걸어갈 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행복을 미루지 않고 맞이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불행을 잠재울 수 있다. 먼 미래 말고 지금 행복할 것. 울상 짓는 일들이 가득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삶에 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Cheer Up!' 🎵

서비스와 기술의 언택트화

비대면 서비스를 주목하라

언택트가 일상이 되어가면서 이제 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의 생활 속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의 비대면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변화하는 기업의 서비스 형태를 함께 살펴보자.

글 이다영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는 이제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온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람과 직접 대면이 필요치 않아 안전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언택트 서비스로는 무인 자판기, 키오스크, 앱 주문, 무인 상점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유통, 운송, 레저, 금융,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에서는 어떠한 언택트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례를 만나보자.



자동차 견적 상담도, 타이어 교체도 모두 언택트 시대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고>

직접 차를 타고 나가 타이어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 넥센타이어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찾아가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 '넥스트레벨 고'를 론칭했다. 서비스는 타이어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고객의 차량이 위치한 장소를 방문해 이루어지므로 고객과의 대면은 일체 없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아우디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

아우디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의 상담과 구매가 가능한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상 상담은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의 안전까지 생각한 서비스로, 소비자는 아우디코리아 홈페이지 내의 '아우디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 진행할 수 있다. 영상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아우디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원하는 모델과 전시장 등의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담당 세일즈 어드바이저가 별도의 연락을 통해 상담 세부 일정을 논의한 후 약속된 일정에 카카오페이스트록을 통해 영상 상담이 진행된다.



언택트하게 이루어지는 쇼핑의 묘미

이마트24 김포DC점 <셀프스토어>

인공지능(AI) 기반 점포로 이름을 알리며 2019년 하반기에 오픈한 이마트24 김포DC점은 국내 최초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다른 편의점 점포와 차이를 가진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SSG페이 앱을 설치한 후 결제를 위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앱의 첫 이용자라면 회원가입을 피할 수 없다.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면 스마트폰 화면에 출력된 QR코드를 이용해 지하철 개찰구 같은 출입기기를 통과해 매장에 입성할 수 있다. 매장에 들어서서 물건을 고르는 것까지는 어느 매장과 다르지 않지만, 계산하는 시점에서 당신은 신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별도의 계산 절차는 필요 없다. 출입기기 앞에 서면 문이 열리고 통과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이토록 신박한 결제는 매장 내에 설치된 30여 대의 카메라와 매대에 설치된 850여 개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처음 방문한 고객이 겪어야 하는 복잡한 가입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람이 결제하지 않는 시스템을 실현했다는 점이 높이 살 만하다.

이니스프리 동대문DDP점 <무인 매장>

“필요한 상품 있으세요?”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장에 입장했을 때 은근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직원을 피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마음을 적극 반영해 이니스프리에서는 동대문DDP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을 오픈했다. 매장 직원의 간섭 없이 편하게 쇼핑한 후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로 직접 결제까지 가능하다. 제품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추천해주는 직원은 없지만, 고객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뷰티톡 미러와 질문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시트팩을 추천해주는 시트팩 밴딩머신(자판기) 등도 비치해 고객의 쇼핑을 돕는다. 이니스프리는 운영 중 문제가 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해 무인 매장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금융, 주택 정보

신한은행 <AI 상담 서비스>

신한은행은 고객 전화 문의 응대에 음성봇 '솔리'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 상담을 지원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사가 아닌 음성봇 솔리가 응대하기 때문에 고객의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내용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솔리의 응대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엔 용건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최적의 상담 직원에게 바로 연결 가능하다. 이 완성형 상담 서비스 덕에 상담사와 연결되기까지의 평균 시간이 40초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AI 상담 서비스의 경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진화시키고 서비스를 점차 확대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GS건설 <유튜브를 통한 분양주택 소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자 분양 시장도 직격타를 맞았다. 이에 GS건설은 유튜브 방송으로 견본주택을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내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방송은 라이브로 견본주택의 내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리포터가 아파트 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채팅창을 열어 질문에도 바로 자세한 답변을 하며 소통한다. 이 라이브가 건설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송인 만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고객에게 전달했다. 실제로 방송 후 상담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방송을 통한 양방향 소통 전략의 효율을 입증했다.



접촉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생활

국립중앙미술관 <VR 투어>

코로나19의 여파가 심각했던 분야 중 하나가 전시관과 공연장이 아닐까 싶다. 막힌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대끼며 관람해야 하는 미술관 역시 휴관을 피하지 못했다. 국내 최대 박물관인 국립중앙미술관은 직접 관람이 아닌 온라인 관람으로 전시 방향을 틀며 탈출구를 모색했다. 온라인 전시는 VR 체험으로 이루어지는데, 박물관에 접속만 하면 바로 VR과 동영상으로 다양한 전시의 관람이 가능하다. 이미 종료된 전시도 전시실의 모습 그대로 VR로 관람할 수 있다. 클릭만 하면 간단한 설명까지 볼 수 있으며, VR로 전시를 보기 때문에 직접 관람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전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리트니스 <온라인 홈트레이닝 서비스>

헬스장도 코로나19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헬스장을 찾는다. 자발적인 홈트로는 자신을 채찍질하기 부족했다면 원격 PT를 받을 수 있는 홈트레이닝 앱 '리트니스'를 시작해보자. 앱을 구매하면 스타터 키트가 배달되는데,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작은 삼각대, 광각 렌즈, 수건, 운동 메모장이 들어 있다. 영상통화 솔루션을 통해 집에서 실시간으로 트레이너 코치를 받을 수 있으며 피드백 또한 바로 가능해 정확한 자세로 운동할 수 있다. 2019년 12월 앱 출시 이후 코어, 유산소, 필라테스, 폼롤러 스트레칭 등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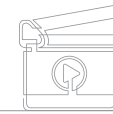


내 인생에 훅 하고 들어온 나의 인생작

어떤 작품은 금방 잊히고, 또 어떤 작품은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본 순간, 어떤 음악을 들은 순간, 어떤 책을 본 순간, 어떤 드라마를 본 순간...
당신 인생의 순간순간을 눈부시게 만들어준 나의 인생작은 무엇인가요?

정리 이다영

글로벌영업2팀 김동현 사원의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족구왕**
감독: 우문기 출연: 안재홍, 황승언



동현적 감상평

〈족구왕〉은 2014년 8월 제가 포항에서 상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즈음 봤던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 대세 배우 안재홍이 무명을 거쳐 이 영화를 계기로 본인을 알리게 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좋아하는 족구를 하기 위해 없어진 족구장의 재건을 요청하는 복학생 홍만섭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며 만섭을 무시하지만 만섭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에 상관없이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에 남은 영화 속 대사

홍만섭 (안재홍)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김동현's Comment

제가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소개하는 건 저 역시 오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개성과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추구하다가 군대라는 현실에 부딪쳐 빛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본 덕분에 전역 후 지금까지 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후회든 만족이든 결과를 책임지는 건 저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인사팀 김재영 책임의 인생 책을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프레임** 글: 최인철

재영적 감상평

〈프레임〉은 평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 즉 다른 프레임에서 사고해보자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인사팀에 발령 날 즈음 아내 추천으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제가 엔지니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뜻으로 추천한 것 같습니다. 책 전체의 내용이 담긴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RE프레임하라.' 이 책을 읽고 난 뒤 모든 시각을 프레임으로 보게 되고 내가 보는 프레임이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을 텐데 상대의 프레임을 나의 프레임에 맞추다 보면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다르다고 해서 잘못을 따지기보단 그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만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남은 책 속 구절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하루아침에 식당이 늘어난 것도, 유독 그날 그 드라마에서만 식사 장면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내가 배가 고파서 세상을 온통 음식 프레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YP)설비보전파트 이희석 파트장의 인생 책을 소개합니다



나의 인생작: **그로부터 20년 후** 글: 민이연

희석적 감상평

여전히 설레는 〈슬램덩크〉. 〈그로부터 20년 후〉라는 책의 표지를 보면 빨간 머리를 한 회사원이 달밤에 건물 옥상에서 달을 향해 슛을 날린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강박호에 푹 빠져서 읽었던 〈슬램덩크〉 만화가 나온 지 어느새 20년이 흘렀다. 〈그로부터 20년 후〉는 20년 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책이었다.
〈슬램덩크〉에 나오는 개성 강한 5명의 캐릭터들이 20년 지난 나처럼 나이를 먹었으면 어떤 모습일까? 아직까지 젊은 날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만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의 추억 에세이를 읽으며 중간중간 삽입된 일러스트를 보고 있다면 20년 전 〈슬램덩크〉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성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㉞

마음에 남은 책 속 구절

당신은 강박호의 단호한 결의를 기억하십니까?
"영감님의 영광의 시절은 언제였죠? 국가대표 때였나요?
나는 지금입니다."

이희석's Comment

이 장면은 〈슬램덩크〉 마지막 경기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책 속에 등장한 구절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 꿈 많던 시절, 뜨거웠던 청춘,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본다!





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비대면 전시 공연

모두를 Cheer Up하게 만들어줄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움츠러든 어깨를 활짝 펴고 Cheer Up!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도 모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 잘될 거예요. 축 처지기보단 지친 마음을 위로해줄 기운 찬 문화생활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리 이다영



라디오 전성시대, 그뻘 그랬지 1978, 우리 가족의 라디오

서울생활사박물관이 1970년대 라디오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1978, 우리 가족의 라디오> 기획전을 개최한다. 본래 전시장을 방문해 라디오 방송의 도입과 변화에서부터 1970년대 생활 모습과 다양한 분야의 라디오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격상된 후 온라인을 이용한 VR 전시를 준비 중이다. 서울생활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소개 영상은 유튜브로 만나볼 수 있다.

기간 7월 22일~11월 15일
장소 서울생활사박물관
문의 02-3399-2900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나요 제17회 자라섬페스티벌

지난 16년간 무수한 어려운 속에서도 쉬지 않고 매년 개최되었던 <자라섬 페스티벌>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올해 <자라섬페스티벌>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주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못지않은 좋은 공연을 준비 중이다. 집콕이 지겨워진 당신에게 더 많은 국내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과 해외 아티스트의 쇼케이스 연주 등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로 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경험해볼 것을 추천한다.

기간 10월 9~25일
장소 경기도 가평군 음악역 1939 및 가평 일대 (온라인 중계)
문의 031-581-2813~4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세계로 도서



이슬아,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을까? 그녀의 글은 낯것 그대로의 감정을 옮겨 적어 투박한 듯하지만 센스 있고 유쾌하다. 그녀가 보고 만지고 느낀 자신의 엄마와의 일상이 귀여운 그림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담겨 있다. 1960년대생 엄마 '복희'와 1990년대생 딸 '슬아'에 관한 기록이 그림과 함께 다정하게 그려져 있어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지만, 쉽게 읽는 것에 비해 마음에 남는 것이 많다. 자꾸만 곱씹게 되고 자꾸만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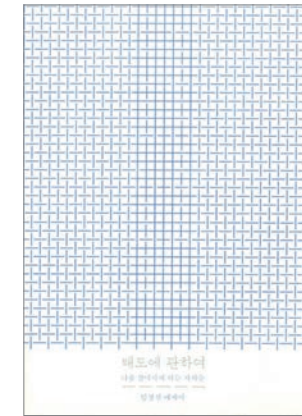
#태어나보니제일가까운사람
#다정한사람 #가장오래속해본관계
#우연히만난두사람의우정



김원, 죽은 자의 집 청소

한 사람의 생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하는 그가 마주한 각기 다른 고독사의 얼굴을 다룬 책 <죽은 자의 집 청소>. 저자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 모른 척 지나쳤던 이웃들의 고단했던 마지막을 조명하며 삶의 소중함을 전한다. 그의 일터엔 남다른 사연이 가득하고, 그의 책엔 그 사연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까지 담겼다. 그가 보고 느낀 현장에서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죽은자의삶을엿보다 #고독한삶과죽음
#이해불가의쓰레기 #지독한고독



임경선, 태도에 관하여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몇 살이 되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자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태도라는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독자에게 전한다. 강요하지 않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단단한 문장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녀가 말하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다섯 가지 태도'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의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세상은원래그렇지않다
#더나아지고싶다는간절함
#내가원하는것을안다는것
#사람답게만드는고유자산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어디에도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상상의 세계를 소설로 그려내는 김초엽 작가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바이오센서를 만드는 과학도였지만 이제 그녀는 SF 소설을 쓴다. 그녀의 여러 단편을 한데 묶어 출간한 이 책에 실린 단편 속 주인공들은 정답이 없는 불가능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주인공들을 통해 근사한 세계를 그려내는 상상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 질문을 던진다.

#할머니과학자 #정상과비정상
#성공과실패 #주류와비주류
#혐오와차별

집에 꼭 박혀 정주행해보자

드라마



나를 살게 하는 딱 한 사람의 어른 나의 아버지

극본 박해영 | 이선균, 이지은

순리대로 그저 살아가고만 있을 뿐인 잘난 것 없는 아버지들이 이토록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나... 등장인물들은 모두 허름하고 한심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과 우직함으로 인간이란, 또 어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일깨운다. 이들의 세상만사를 통달한 것 같은 대사와 마주할 때면 정말 이번 인생이 작가의 첫 회 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세상에 대한 절망과 분노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한 아이를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준 단 한 사람의 어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의 아버지>. 그들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는 그대들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딱딱한 세상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한다.

서른 돼도 안 팬찮은 여자들의 멜로 멜로가 체질

연출·극본 이병헌 | 천우희, 전여빈, 한지은, 안재홍

<스물>, <극한 직업>의 감독으로 잘 알려진 이병헌 감독의 드라마 입봉작 <멜로가 체질>은 시청률 면에서는 다소 저조한 성적으로 막을 내리는 씁쓸함을 맛봤지만, 많은 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마니아를 양산해내는 데는 성공했다. 서른, 여자 셋, 멜로를 주제로 각기 다른 여러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며 감독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유쾌함으로 적절히 버무려 바람직하게 극을 이끌어간다. 드라마 속 캐릭터들은 톡톡 튀는 성격과 대사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여자의 입장에 또 남자의 입장에 대입할 수 있게 만들어 연애세포를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낸다.

감빵 속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슬기로운 감빵생활

연출 신원호 | 박해수, 정경호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환경 중 하나는 분명 감옥일 것이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추락한 슈퍼스타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재소자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블랙 코미디로, '응답하라' 시리즈로 초대박을 친 신원호 PD가 연출한 작품이다. 다양한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각자의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신원호 PD의 능력이 역시 빛을 발하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동시에 얻는 큰 성공을 거뒀다. 캐릭터 하나하나에 서사가 부여되어 그들의 케미를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야구 몰라도 OK! 사람 냄새 나는 오피스 드라마 스토:브리그

극본 이신화 | 남궁민, 박은빈, 오정세

관중, 역동적 그라운드, 진한 땀 냄새가 모두 녹아 있어 프로야구 팬들의 취향을 저격하나 했는데, 야구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야알못까지 홀려버린 야구 드라마가 여기에 있다. 야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주류로 내세우기보다는 그 뒤에서 조력하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 단장과 프런트를 조명하며 프로야구 만년 꼴찌 팀의 성장기를 멋드러지게 그려낸다. 패배가 익숙하고 점차 그 밑바닥부터 썩어들어가는 팀을 회생시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비인기 종목의 말은 팀들을 한꼴달태시켜 우승을 거두게 만들지만 그 끝은 늘 해체였던 남자와, 늘 꼴찌에 머무르는 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자. 꼴찌 팀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그들의 이야기에 꼭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나의시월'

Private, natural, lovely...

천 년 세월을 오롯이 담고 있는 도시, 경주 토함산 자락의 자연 속. 그곳에 오직 당신만을 위한 독채 '나의시월'이 있다. 외부와의 접촉이 꺼려진다면 프라이빗한 공간 속에서 온전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나의시월'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집콕 대신 안전한 룸콕 여행으로 답답한 당신의 마음에 숨쉴 구멍을 선사해보는 것은 어떨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간마다 변모하는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나의시월'로 당신을 초대한다.

글 이다영 사진 나의시월, 이다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마음이 그저 편안하고 쉴 만한 곳. '나의시월'에서의 잠간이 그랬다. 나의 긴장을 풀어지게 했고 몸을 쉬게 했으며 마음을 위로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어우러져 녹아 있는 공간 속에서의 충만했던 시간이다. 프라이빗하고 자연이 공존하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곳, '나의시월' 이야기다.



나의시월

새빨간 갤러리 건물을 지나자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는 깔끔하고 아담해 보이는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초록의 향연 속에 건축물이 은근슬쩍 자리를 틀고 있지만 위화감은 없다.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자연과 하나 된 것 같은 그림이다.

화가인 엄마 손영 씨와 아트디렉터인 딸 임규향 씨가 함께 관리하며 아트 스테어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예술과 묵다'라는 특별한 콘셉트만큼 그 시작 또한 조금 특별하다.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장르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화가 손영 씨는 그만의 작업실로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을 담고 있어 그 안에서 충분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원했다. 이런 그녀가 경주에 터를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오랜 역사와 함께 흘러온 경주는 한적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그녀는 이곳으로 흘러들었다.

좋은 곳에서 좋은 마음으로 작업하기 위해 경주 생활을 시작했지만 전에 살던 곳을 완전히 정리하고 작업실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손영 씨를 위해 딸 임규향 씨가 작업실 일층의 생활 공간을 에어비앤비에 올려 경주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 공유를 제안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에어비앤비에 올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약이 잡혔다. 그 시기가 두 모녀의 예상보다 일러 당황한 것도 잠시, 예술에 몸담고 있는 두 사람은 부족한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며 하루 만에 감각적인 '나의시월'을 탄생시켰다.

- 1 갤러리 안쪽에 전시되어 있는 호스트 손영 씨의 작품.
- 2 따스한 아침 햇살을 느껴볼 수 있는 1층 벽난로 방.
- 3 '나의시월' 갤러리 외관.



1



2

일층, 초록, 그리고 햇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초록색 복도는 긴장했던 마음을 릴렉스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연의 색, 초록을 좋아하는 호스트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색이 좋아 이곳을 다시 찾는다. 밖에 보이는 자연이 온통 초록인 것처럼 집 안도 자연의 일부인 듯 어울렸으면 하는 호스트의 바람에서 '나의시월'의 포인트 색으로 초록이 선택됐다. 이처럼 공간공간을 들여다볼수록 방마다 각자의 매력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온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구석구석에도 호스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부엌 공간에도 호스트의 정성이 깃들어 있다. 벽에 걸린 그림, 찬장에 놓인 컵과 접시, 이곳 저곳 붙어 있는 메모도 손영 씨와 임규항 씨가 손수 그리고 만들고 써넣은 것들이다. 식탁은 밖이 보이는 큰 창과 맞닿아 있는데 창밖의 흰 벽에 빔을 이용해 영상을 틀어 감상할 수 있다. 벽을 흰색으로 칠해 채워 넣고 그곳에 영상을 틀었을 뿐인데 식탁은 밤의 감성으로 완벽해졌다.

침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포인트 역시 초록이다. 벽과 이불, 쿠션에 포인트로 들어간 초록과 초록을 잡아주는 깨끗한 흰색, 그리고 나무 가구와의 조화가 깔끔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방과 연결된 베란다로 나가면 해먹이 기다리고 있다. 해먹에 몸을 누이고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조명 삼아 독서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일층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바로 벽난로가 있는 온돌방이다. 마당을 훤히 볼 수 있는 큰 창과 장작을 뿜 수 있는 벽난로, 그리고 담요까지 있어 방의 분위기가 완성된다.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그대로 창을 열기만 하면 된다. 침대가 있는 방이 있음에도 많은 게스트들이 이 공간에서 잠을 청한다. 창을 통해 따뜻하게 스며드는 햇살을 만끽하며 잠에서 깨는 느낌은 '나의시월'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일지도 모른다.



3

- 1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초록으로 이루어진 복도의 선반.
- 2 귀엽게 늘어서 있는 호스트 손영 씨의 작은 작품들.
- 3 작품으로 거듭난 부엌 상영관.
- 4 이층의 큰 창 앞에 놓인 탁자와 의자.

이층, 창, 그리고 자연

이층은 일층보다 훨씬 단조로운 침실과 욕장뿐인 구조지만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결코 단조롭지 않다. 단조로움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편안해지고, 쉬를 가지고 새 힘을 얻는다.

욕장은 호스트 손영 씨가 주로 빨래를 널어두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고 건조기가 빨래를 말려주는 세상이 왔지만 꼭 다 마른 빨래라도 욕장에 널어 햇살을 머금게 한다. 시골에서 자란 손영 씨는 이렇게 자신이 겪어온 삶에서 좋았던 것들을 이 공간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나의시월'에 적용해본다.

이곳의 모든 방에는 큰 창이 많다. 일층과 마찬가지로 이층의 창 역시 그렇다. 커다랗고 시원하게 뚫린 창을 통해 집 안으로 쏟아지는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은 이곳에 있는 사람 또한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층 침실에서는 창을 통해 토함산과 불국사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창이 많아 고개를 약간만 돌려도 전혀 다른 풍경의 자연을 볼 수 있다. 저녁 여섯시가 되면 불국사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이곳까지 닿는데 그 소리가 청량하고 좋다. 이 공간에서는 자연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에 섞일 수 있는 기분을 느껴볼 수 있다. 이 방의 창이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만들어진 것은 그런 이유에서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는 곳 '나의시월'. 계절마다 자연이 입혀주는 옷으로 같이입으며 그 자체로도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주변 풍경. 마당에서 들 반갑게 맞이해주는 진돗개 몽구, 호스트 손영 씨가 내어주는 따뜻한 웰컴티, 곳곳에 스며 있는 예술 작품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정말이지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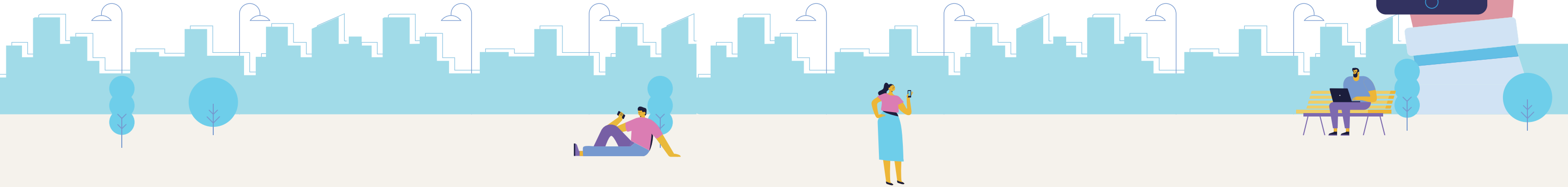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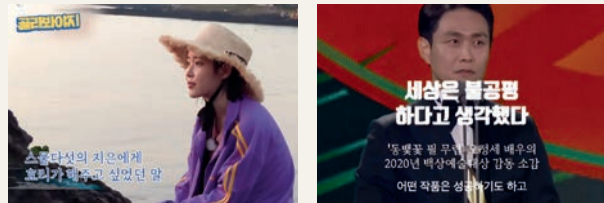
QR코드로 알아보는 웃음 코드

지친 일상에는 힐링이 필요하다. 힘들고 무료한 기분이 들 때,
QR코드를 통해 일상에 잠깐의 휴식을 부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피식' 정도라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 당신이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글 이다영



잔잔하게 전달하는 따뜻한 기운 for Cheer Up



효리 언니와 나누는 담담한 대화

〈효리네 민박〉 프로그램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효리 언니의 담담하고 차분한 일상. 그곳을 거처간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녀가 시크한 듯 무심하게 툭 던지는 이야기들은 웬지 모르게 따뜻한 위안과 격려로 다가온다.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는 배우 오정세의 수상 소감

〈동백꽃 필 무렵〉에서 정이 가는 짜질이 노구태 역을 맡아 훌륭히 소화해낸 오정세가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언변으로 따뜻한 수상 소감을 전한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는 말을 함께 들어보자.



참을 수 없이 몰려오는 큰 웃음 for Laugh



정찬우가 재연하는 컬투쇼 레전드 사연

무조건 당신의 웃음을 보장한다. 처음 들어도 웃음이 터지고 아는 이야기임에도 다시 웃음이 터지게 하는 정찬우의 입담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다. 많고 많은 사연들 중 그가 직접 뽑아 재연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후회 없는 8분이 될 것을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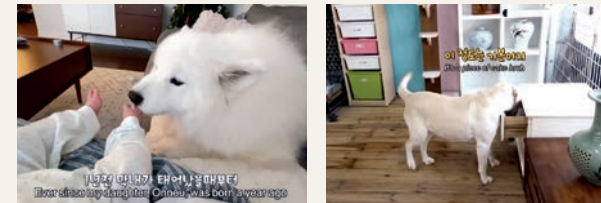


재석, 제시의 앙숙 티키타카

국민 매너남 유재석과 썸 언니 제시. 얼핏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조합이 꽤 신선하고 유니크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걸걸한 목소리로 영어와 어색한 한국말을 섞어 쓰는 예능 치트키 제시의 활약에 유재석 끼웃기는 포복절도로 이어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화되는 느낌 for Healing



아기와 강아지는 사랑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중에 단연 최고는 아기와 강아지가 아닐까 싶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눈길이 가고, 어쩌다 미소라도 지어주면 자신도 모를 아빠미소가 사르르 번진다. 아기와 강아지, 그 사랑의 조합 속에서 힐링을 경험해보자.



말을 알아듣는 똑똑이 리트리버 호야

이미 가지고 있는 귀여움으로도 충분한데 사람의 말까지 알아듣고 행동한다니... 천재견 호야의 똑똑함은 정말이지 보고도 놀라울 지경이다. 이것저것 척척 해내는 사람 같은 강아지 호야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 호야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눈물이 방울방울 또르르 for Im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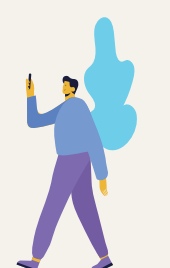
개통령이 반려견과 이별하는 법

처음 겪는 반려견과의 이별 앞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은 개통령 강형욱도 마찬가지다. 아픈 반려견 다올이를 떠나 보낼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별을 준비하는 그와 가족들의 이야기.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그 시린 이야기를 마주한다.



세월도 때지 못한 혈육의 정

전 국민의 눈물 버튼을 자극하는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생방송 시간만 454시간에 육박하는 역사상 유례 없는 장기 캠페인이다. 울다 지쳐 쓰러질 준비가 되었다면, 영상을 통해 가슴 아픈 역사의 상흔을 함께 느껴보자. ㉠



〈헬로우 넥센〉 사보 속에 숨어 있는 정답을 찾아라

넥 센

Q

U

i

Z



〈헬로우 넥센〉을 애독하는 넥센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퀴즈! 초성퀴즈 문제에 도전해보세요. 읽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지나쳤던 내용도 다시 한번, 사보도 보고 퀴즈도 맞히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글 이다영

사내 뉴스 및 정보, 강연 생중계, 기획 영상 등의 다양한 소식을 개별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넥센타이어 사내방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ㄴ ㅅ ㅋ ㅈ ㅊ ㅍ ㅇ

힌트 각 단어는 모두 영어입니다.

넥센타이어와 후원 재계약을 체결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 이름은 무엇일까요?

ㅁ ㅊ ㅅ ㅊ ㅅ ㅊ

힌트 넥센 News 페이지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 퀴즈의 정답을 적어서 사진 찍은 후 이메일 hellonexen@nexentire.com으로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과 함께 사보 구독 소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경을 만나 걸려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합니다.

좌절이 포기로 이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실패를 곱씹게 되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면 다른 시야가 펼쳐집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빛나는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가장 큰 영광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질 찬란한 내일을 잊지 마세요.
힘내세요. Cheer Up!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힘!

넥센인이여 Cheer Up하라



지치고 힘든 시기일수록 조금 더 'Cheer Up'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다면 더 쉽고 빠르게 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나만의 무엇! Cheer Up으로 향하는 넥센인의 필살기는 무엇인가요?

정리 이다영



Q 현재 넥센인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앞에 닥친 하기 싫은 일	11명	7.91%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45명	32.37%
코로나19의 장기화	60명	43.17%
싫어하는 사람과의 어쩔 수 없는 관계 유지	14명	10.07%
기타	9명	6.48%

- 노력 대비 나오지 않는 성과 · 김병갑
- 도전적이지 않은 목표들 · 이종우

Q Cheer Up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임없이 몸을 움직인다	12명	8.05%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난다	31명	20.81%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73명	48.99%
맛있는 것을 먹는다	25명	16.78%
기타	8명	5.37%

- flex한다 · 김동현
- 휴식 · 김상문

Q 넥센인을 Cheer Up하게 만들어주는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쌩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37명	33.04%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17명	15.18%
소녀시대 <힘내!>	17명	15.18%
엄정화 <페스티벌>	19명	16.96%
기타	22명	19.64%

-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 컨츄리꼬고 <오 해피> · 강호권
- SHOW! 끝은 없는 거야 / 김원준 <SHOW> · 박우진



Q 가장 지쳐 있던 순간 넥센인에게 큰 위로가 됐던 말은 무엇인가요?

- 2020년 XX월 XXX님의 정기급여 명세서입니다 · 신현명
- '소주 한잔 할까? 힘내자' 형식에 그치는 조직에서 소주 한잔과 함께하는 수다는 큰 위로였다 · 송계주
- 남들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사세요 · 조혜선
- 별거 아냐. 같이 하자 · 이명수
-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 김중호

Q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회와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힘냅시다. · 이종호
- 힘들어도 함께 굴러가면 더 단단한 뭉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넥센 파이팅 ^^ · 김무열
-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걱정 말고 맘 편히 즐기며 삽시다~ · 최은미
- 힘들더라도 가족, 주위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길 노력해보아요~! · 고용운
- 개인 방역에 신경 쓰며, 상대방을 배려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 최상현

우정과 애정으로 똘똘 뭉친
동료와의 에피소드 대방출

지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나를 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즐거웠던 일도 고마웠던 일도 함께해온 동료와의 에피소드를 <헬로우 넥센>이 전해드립니다.

정리 이다영



김용만 사원

주용호 사원

(YP)PCR파트
김두석 사원에게

(YP)비드파트
주용호 사원과
 (YP)품질검사팀
김용만 사원이

넥센타이어 바다 수영 3인방의 탄생 비화

바다 수영에 관심은 있었으나 실내 수영과 달리 위험 요소가 많아 고민하고 있던 중 PCR파트 김두석 사원을 만나 오픈 워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워터에 대해 알려주고 많은 도움을 준 김두석 사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 8월 해운대에서 첫 입수를 시작으로 어느덧 바다 수영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산핀'이라는 동호회를 통해 휴무일에 저희 3인방이 바다에 가서 운동을 하곤 합니다.

관심은 있으나 막상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희 두 사람을 이끌어줘 바다 수영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 김두석 사원에게 저(주용호 사원)와 김용만 사원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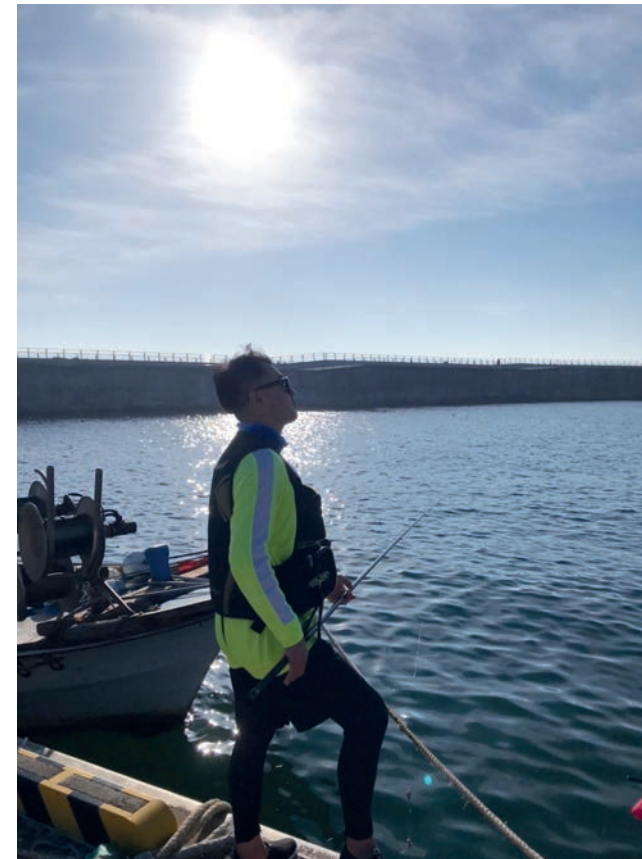


김두석 사원

오늘을 더 Cheer Up할 수 있게 해주는 달콤했던 휴가의 기억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2020년의 여름, 넥센인들은 어떤 여름휴가를 보냈을까요?

정리 이다영



내구성능연구팀 송민석 선임연구원

저는 4살 터울 동생과 둘이서 경주 감포에 낚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생과 저는 바다낚시가 취미라서 평소 자주 낚시를 가곤 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비로 인한 댐 방류와 급격히 낮아진 수온으로 인해 낚시 여행의 조과는 '꽩'이었습니다만, 낚싯대를 던지고 시원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어 무더운 여름 속에 시원함만은 낚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감포에 가보지 않은 분들께 감포 여행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법인파트 김진식 책임

휴가 때 코로나19로 멀리 갈 수 없고 가까운 완도 명사십리에서 인적이 없어 행복했던 순간. 아들·딸과 함께 바닷가에서 예쁜 추억 만들고, 아빠는 패딩보드에 빠져서 몸살나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추억도 만들어보고, 마지막 지리산 계곡에서 추억 만들기. 평생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며 아껴주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 아빠가 지켜줄게!



개발지원팀 탁세원 선임연구원

저는 이번 하계 휴가 기간에 부산 해운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전후로 장마가 심하게 오고 태풍에 이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시기에 소중한 충전을 하고 휴가를 다녀왔네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에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바다를 보니 간만에 힐링할 수 있었고, 해운대의 밤 야경도 너무 멋졌습니다. "COVID 19 OUT"을 기원하며 해운대 한가운데 마스크 모양의 모래 작품이 있었는데, 작품 속 글처럼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부회계관리팀 정민환 팀장

삼진강 캠핑을 계획했으나 40여 년 만의 대홍수로 인해 캠핑장 예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정에 없이 가게 된 청도 운문사 인근 삼계리 계곡입니다. 집에만 갇혀 있던 꼬맹이들이랑 신나게 물놀이 잘하고 왔네요.



인사팀 김주엽 책임

올여름에는 코로나19를 피해서 주문진 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딸이 안쓰러웠는데, 오랜만에 모래놀이와 물놀이를 하니 무척 즐거워하고 신나 보이더라고요.



품질경영팀 황익진 수석

코로나19 시대의 바캉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북적거리는 해변 대신 무인도 목섬에 물 들어오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마음까지 안정되는 휴가를 보내며 완벽하게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구성능연구계 이영남 사원

무더위와 모기들이 방해해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이 가장 행복합니다.



CP생산관리팀 원자재관리계 김병기 사원

이번 여름휴가는 여행 대신 집에서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며 휴가를 보냈습니다. 외식 대신 서툴러도 직접 요리한 음식이 맛도 있었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서 두 배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렌탈파트 박용식 선임

8월 24일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지 1,000일 된 기념으로 아기 돌 사진 이후 오랜만에 가족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딸아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번개맨 옷을 입고 예쁘게 촬영했습니다.



인사팀 박성준 책임

동료의 소개로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아아진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와 추억 쌓기 좋은 곳이었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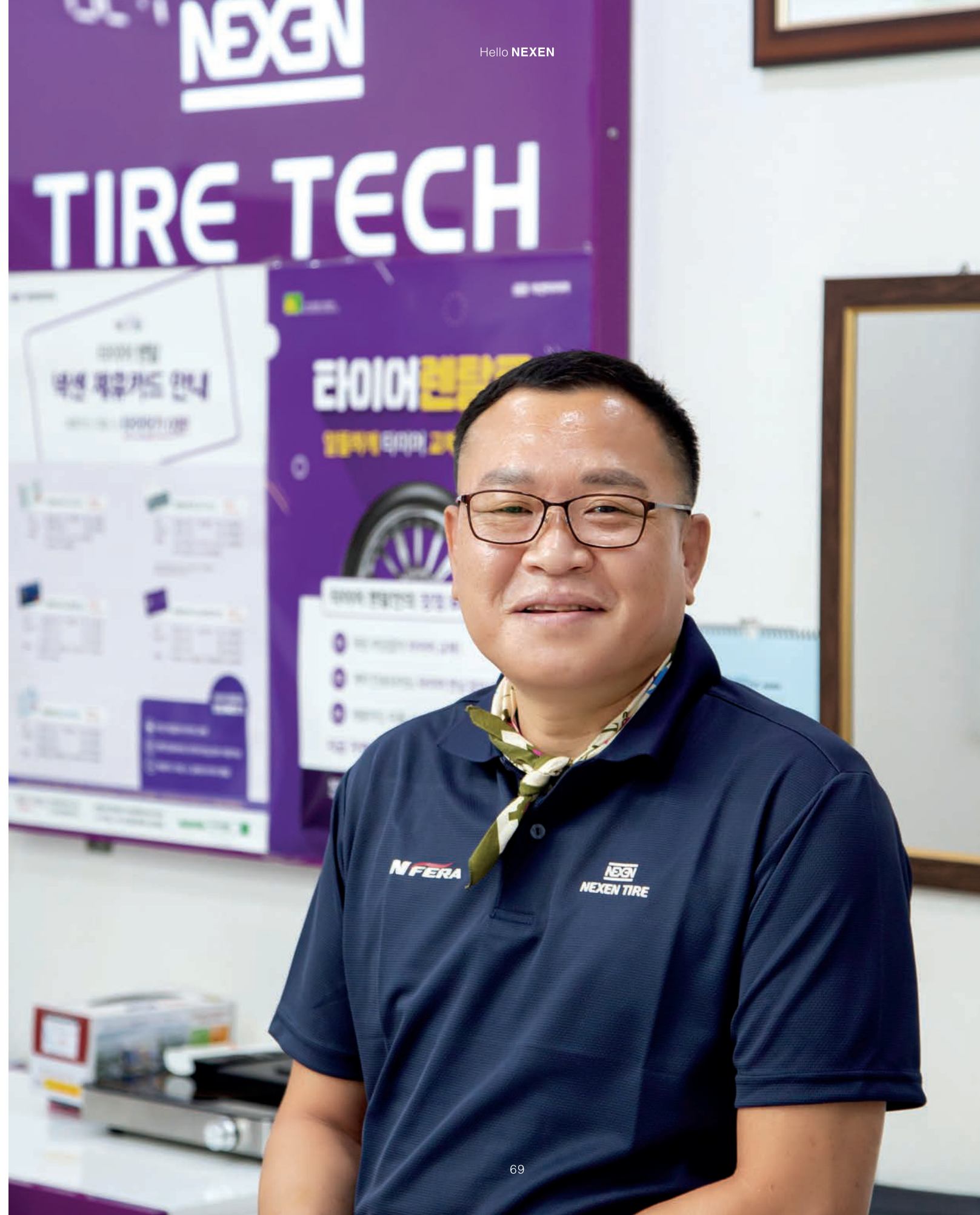


좋은 상권에서 좋은 서비스로

타이어테크 김천중앙점

한적하고 여유롭지만 생활권 시설들이 집중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김천의 상권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김천중앙점. 좋은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매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는 김천중앙점의 이한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글 이다영 사진 이명호





오픈한 지 일 년, 오픈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아 아직 따끈따끈한 신생 매장 타이어테크 김천중앙점 대표 이한영입니다. 현재는 저와 직원 한 명, 그리고 제 아내까지 함께 일하며 매장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잘 맞춰가며 일하니 부담하는 부분 없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상권에 대한 확신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주변에 타이어 전문 매장이라고 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없었고, 마침 세차장이었던 이곳이 자리가 나면서 망설임 없이 김천중앙점을 오픈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변 다른 매장이 워낙 오래된 매장이라 장비나 시설이 노후되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했죠.



Hello NEXEN



최신식 장비와 시설을 갖추니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도 특별히 신경 써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무엇이든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일 교환, 오일 보충 등 소소한 것들부터 타이어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까지 각별하게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자부할 수 있는 건 상담인데, 제가 하는 작업적인 측면은 저만 알고 작업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분들께 하나하나 과정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곁들입니다. 대중 한다는 느낌을 절대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타이어 정비 쪽에서 일한 경력이 18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경력이면 타이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전문가라 자부합니다. 한 우물을 제대로 판 경력을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타이어에 대한 정보로 고객의 타이어를 정비해드리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청결과 안전! 저희 김천중앙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자부하는 두 가지 철칙입니다. 매장의 청결과 고객의 안전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고객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김천중앙점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 경북 김천시 자산로 180-2
 영업시간 매일 09:00~22:00 문의 0507-1359-1661

NEWS

AI 빅데이터 활용한 소음 저감 예측 시스템 구축



넥센타이어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타이어 소음을 한층 저감시킬 수 있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최근 넥센타이어는 현대차·기아차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함께 NVH(Noise, Vibration and Harshness/소음, 진동, 충격) 빅데이터 연구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 미래 모빌리티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음 분야는 타이어 패턴 형상과 소음 설계 인자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 결과값을 갖는데,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활용해 제품에 최적화된 값을 뽑아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소음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차량 및 타이어 외부 방사 소음(Pass by Noise)을 대폭 감소시켜 개선했다. 소음 측정에 활용된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 무향실은 100개 이상의 최첨단 센서로 소음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성능 분석이 가능하며, 국내 최초 4드럼 실험 설비가 마련돼 실제 차량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소음 저감 예측 기술뿐만 아니라 앞서 연비 향상을 위한 에어로다이내믹 저감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OE)와 교체용 타이어(RE) 제품 적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구와 함께 R&D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글로벌 타이어 산업을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NEWS

폭스바겐 '골프' 8세대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골프(Golf)' 8세대 차량에 '엔블루 S'와 '윈가드 스포츠 2' 제품을 공급한다. 폭스바겐의 '골프'는 1974년 첫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판매 3,500만 대 이상을 기록한 차량이다. 월드 스테디셀러와 월드 베스트셀러 타이틀을 모두 갖고 있으며, 이번 넥센타이어 제품이 들어가는 '골프'는 8세대 모델로 풀 체인지되었다.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S' 제품은 친환경 차량 및 고성능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로 유럽의 강화된 CO₂ 규제에 대응해 타이어의 회전 저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차량의 소음과 연비 개선을 위한 사이드 월 공기 역학(Aero Dynamic)을 당사 최초 적용해 연비 등급뿐만 아니라 유럽 환경 규제 기준인 주행 소음(Pass by Noise)도 저감했다. 특히 기존 제품 대비 간결한 그루브 디자인으로 고속 배수성과 빗길 제동력을 강화했다. '윈가드 스포츠 2'는 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속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눈길에서 뛰어난 핸들링과 제동력으로 고급 세단과 스포츠카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다. 눈길은 물론 젖은 노면, 마른 노면에서도 핸들링과 제동 능력 모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파사트', '폴로'와 '제타' 등 폭스바겐 차량에 지속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NEWS

6년 연속 GM '올해의 우수 품질 공급 업체' 선정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GM(General Motors)의 '올해의 우수 품질 공급 업체'로 선정되며 품질 능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넥센타이어는 '2019 GM 올해의 우수 공급 업체'에서 품질 부문 우수 공급 업체(2019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로 6년 연속 선정됐다. GM의 우수 공급 업체 시상식은 1992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GM과 거래 중인 글로벌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물류, 공급망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를 선정한다. 넥센타이어는 GM뿐만 아니라 포르쉐, 폭스바겐, FCA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지속 확대하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18년 미국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 R&D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글로벌 R&D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품질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NEWS

브리지스톤 출신 외국인 임원 영입, 미래 원천 기술 강화



넥센타이어가 일본 '브리지스톤' 출신 외국인을 임원으로 영입하며, 미래 원천 기술 강화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중앙연구소장(Central Research)을 지낸 모리타 코이치를 미래기술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모리타 코이치 BG(Business Group)장은 브리지스톤에서 타이어 재료개발부 유닛 리더와 연구부장을 거쳐 중앙연구소장, 이노베이션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30년간 근무했다. 브리지스톤 근무 당시 '변성 폴리머를 이용한 재료 나노 기술 제어 및 타이어 개발'로 일본 '문부과학대신 표창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분야에서 오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임원 영입을 계기로 재료 개발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로 촉발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대두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기술을 선도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포르쉐 타이어 개발 총괄 책임자 출신의 마이클 하우프트 BS(프리미엄OE Business Sector)장에 이어 이번에 모리타 코이치 BG장을 영입하며, 글로벌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급변하는 카 메이커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미래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NEWS

GS리테일 통한 '넥스트 레벨 렌탈' 판매 개시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 레벨 렌탈'을 GS리테일을 통해 판매하며 유통 채널을 확대한다. 넥센타이어는 8월 5일부터 전국 300여 개 'GS THE FRESH' 슈퍼마켓 매장에서 타이어 렌탈 판매를 시작했고, 8월 25일부터는 1만 4,000여 개 전국 'GS25' 편의점에서도 고객이 편리하게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GS THE FRESH'와 'GS25' 매장에서 직원에게 문의해 타이어 렌탈 전용 모바일 QR코드를 인식한 후 상담 신청만 남기면, 원하는 시간대에 타이어 전문 상담원이 전화하여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넥스트 레벨 렌탈'을 계약한 고객에게는 각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GS리테일모바일 상품권'을 타이어 1본당 5,000원씩, 최대 2만 원을 다음 달에 제공한다.

'넥스트 레벨 렌탈'은 타이어를 렌탈하고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 및 차량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넥센타이어가 2015년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선보여 현재까지 누적 판매 70만 개를 돌파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타이어 렌탈 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찾아가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업계 유일 비대면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 GO'를 통한 타이어 장착도 가능하다. '넥스트레벨 GO'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NEWS

문체부·문예위 주최 감염병 전담병원 대상 미디어아트 전시 후원



넥센타이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순회 전시 <힘나는 예술여행>을 후원했다. <힘나는 예술여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의료진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및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병원 순회 사업이다.

넥센타이어는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예술을 통해 치유한다는 취지에 동참해 '도전', '협력' 등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전 국민에게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특히 파도를 주제로 한 <두드리다> 작품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부딪히는 파도처럼 코로나19 시대의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싸워내는 의료진의 '도전' 정신을 나타낸다. 최대 15m 길이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5대 특별·광역시 전국 9개 병원에서 8월 5일부터 9월 18까지 순차적으로 전시되었으며, 더불어 이이남 작가의 고전 회화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전시됐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과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의 구호 활동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NEWS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1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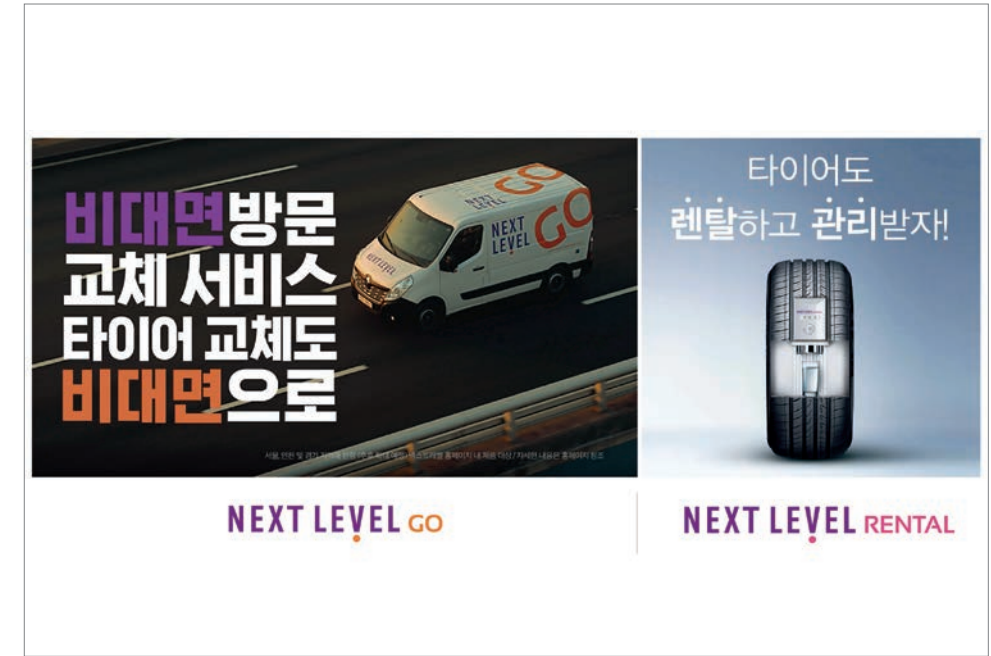


넥센타이어가 “글로벌경영협회가 주관하는 ‘2020 글로벌 고객만족 역량 평가제도(이하 GCSI)’ 조사에서 타이어 부문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8월 31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GCSI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글로벌경영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글로벌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산업경쟁력 지표 제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고객만족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평가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3주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10만 3,000여 명으로, 평가 항목은 고객만족 요소, 고객 가치, 글로벌 역량, 충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넥센타이어는 매년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장착된 타이어 제조사에 관계없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자동차 검사소 등에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외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유럽에서 높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아데아체 모터벨트>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강력 추천과 만족 등급을 받으며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번 ‘2020 GCSI’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증식 대신 각 부문 1위 수상 기업들에게 인증서만 전달했다.

NEWS

'2020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종합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0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종합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 항목을 정량화하여 각 부문별로 한 해 동안 가장 사랑받은 서비스를 선정하는 상이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렌탈’을 론칭했다. 이는 다양한 맞춤 렌탈 상품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정기 방문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이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70만 개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넥스트레벨 렌탈’은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흡소핑 배송을 통한 판매를 비롯, 지난 8월부터는 전국 ‘GS THE FRESH’ 슈퍼마켓 매장과 ‘GS25’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하며 유통 채널을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찾아가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넥스트레벨 GO’를 출시했다. ‘넥스트레벨 GO’는 타이어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가 설치된 차량과 함께 고객의 차량이 위치한 장소를 방문해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넥센타이어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다.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방문 장착 서비스이기도 하다.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NEWS

英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와 후원 재계약 체결



넥센타이어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와 후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맨시티와 처음 파트너십을 체결, 2017년에는 프리미어 리그 최초로 공식 슬리브 파트너로 계약을 연장하며 후원 범위를 확대했고, 이번 재계약으로 세 번째 후원을 이어가며 브랜드 노출을 더욱 확대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의 홈구장 광고 및 선수 유니폼 왼쪽 소매를 통한 로고 노출 외에 남자팀 훈련복, 여자 축구팀 유니폼, e스포츠, EDS(2군) 선수 유니폼 소매로도 범위를 확대해 넥센타이어 브랜드 노출을 강화한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은 “지난 5년 동안 맨시티와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오면서 많은 이정표를 세우고 성장했다. 특히 맨시티는 프리미어 리그 2년 연속 우승 달성, 넥센타이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4대 거점을 완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계속 시너지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맨시티와 함께 축구 재단(City Football Foundation)과 넥센 맨시티 컵(Nexen Man City Cup)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청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댈러스 컵(Dallas Cup)과 칼리지 앰배서더(College Ambassador)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축구 발전을 위한 CSR 캠페인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NEWS

美 전기차 '카누'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Canoo)'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카누'는 기존의 차량 서비스 제공 및 사용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차량 실내를 극대화한 미래형 디자인으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차체 하부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도입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기 구동 장치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작년에 처음 공개한 첫 번째 모델 '카누'는 2022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카누'에는 타이어의 안전성, 내구성, 저소음 등 차세대 전기차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만족시키는 넥센타이어의 올시즌 프리미엄 SUV 타이어 '로디안(ROADIAN) GTX'를 전기차용으로 개발한 '로디안 GTX EV'가 장착될 예정이다. '카누'의 차량 실내와 차체 하부 플랫폼인 스케이트보드를 총괄하는 알렉시 샤보누(Alexi Charbonneau)는 타이어 선택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대형 SUV 수준의 실내와 콤팩트한 소형차의 외관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타이어를 찾아야 했다. 핸들링, 기후, 안전 등을 모두 고려한 타이어가 필요했다”면서 “넥센타이어의 '로디안 GTX EV'가 이 모든 것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카누에 고객 맞춤형 모델을 처음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히 신규 차량에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것을 넘어 넥센타이어가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㉞



참여해주세요

- ①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②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 ③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독자 당첨자
허효정, 정은주, 김경철, 이성남



2020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1년 연속 1위

라이어렌탈로

알뜰하게 타이어 교체해보세요



타이어 렌탈만의 장점 BIG 3 !!

- 01 목돈 부담없이 타이어 교체!
- 02 계약 만료되어도 타이어 반납 없이 이용!
- 03 제휴카드 이용 시, 공짜로 타이어 렌탈!

지금 가까운 렌탈전문점에 문의해보세요!

NEXT LEVEL
RENTA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

www.nexen-nextlevel.com
타이어렌탈 고객센터 ☎ 1855-0100

NAVER 타이어렌탈



N FERA

Primus AS T1



승차감의 새로운 솔루션



다양한 드라이빙 환경에서 느껴지는 안락한 승차감



사계절 오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마모 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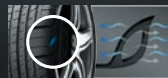


고급 세단을 위한 럭셔리 디자인

최적화된 피치 배열을 통한 소음 제어 및 우수한 승차감 구현



쿨링핀 기술 적용으로 효과적인 열 배출을 통한 뛰어난 고속주행 안정성 강화 및 마모성능 향상



사이드월 부 유려한 써클 웨이브 기법으로 제품의 컴포트 속성 구현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

※ 제품 4개 구매 시 보증서 1매 제공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엔페라 新 명품보증제도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 (www.nexentire.com)내 보증제도 안내 내용 참조



NEXEN NEXEN TIRE